

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(제2014-24호)

2014. 7. 24 (목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

핀란드/스웨덴, 가재 신종질병(ESS; Eroded Swimmeret Syndrome) 발견(7.16)

- 동 핀란드대학 생물학과 연구진 및 스웨덴 관계자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시그널가재(signal crayfish) 암컷에 감염되는 신종질병을 발견함.
- Eroded Swimmeret Syndrome (ESS, 유영각부식증후군)은 암컷 가재의 유영각을 파괴하여 번식력을 약화시키고, 어미가재의 폐사를 초래하는데,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관찰되는 시그널가재 집단의 갑작스런 감소는 일부 ESS 발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핀란드, 스웨덴 양국은 ESS에 대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, 가재전염병(crayfish plague)으로 인해 병약해진 시그널가재 암컷이 ESS에 감염될 수 있으며, 원인은 Fusarium 속 세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음.
- 동 핀란드대학 연구원 Japo Jussila는 "시그널가재 암컷은 유영각을 이용해 수정란을 꼬리 밑에 보관한 다음 부화시킨다. ESS는 부화되는 알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유영각 일부를 손실한 시그널가재 암컷의 번식력은 대폭 악화될 수 있다"고 밝힘.

출처 : <http://www.paneuropeannetworks.com/environment/new-disease-of-the-signal-crayfish-discovered/>

칠레, 연어 감염 세균(*Piscirickettsia salmonis*)에 대한 백신 개발 중(7.21)

- 칠레 타카마 사막의 야생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연어를 *Piscirickettsia salmonis*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치료법이 개발 중임. 이 세균은 과거 칠레 전체 연어집단 중 50% 폐사를 유발해, 특히 칠레 남부에 약 6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양식산업에 피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세균임.
- 칠레 산티아고 대학, 브렌타 모닥 박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을 구성해 *P.salmonis* 저항력 보유 가능성이 높은 천연물질 평가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,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항생제로는 억제하기 힘든 이 세균에 대해 해당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실험 실시 예정임. 이 식물은 연어에 대해 항 바이러스 및 면역자극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, 천연 물질이므로 바닥에 쌓이지도 않고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어 양식위생에도 도움이 됨.

출처 : <http://translate.google.com.au/translate?sl=es&tl=en&hl=en&js=n&ie=UTF-8&u=http%3A//www.dicyt.com/noticias/investigadores-trabajan-en-la-vacuna-contra-una-bacteria-que-ataca-a-salmones>